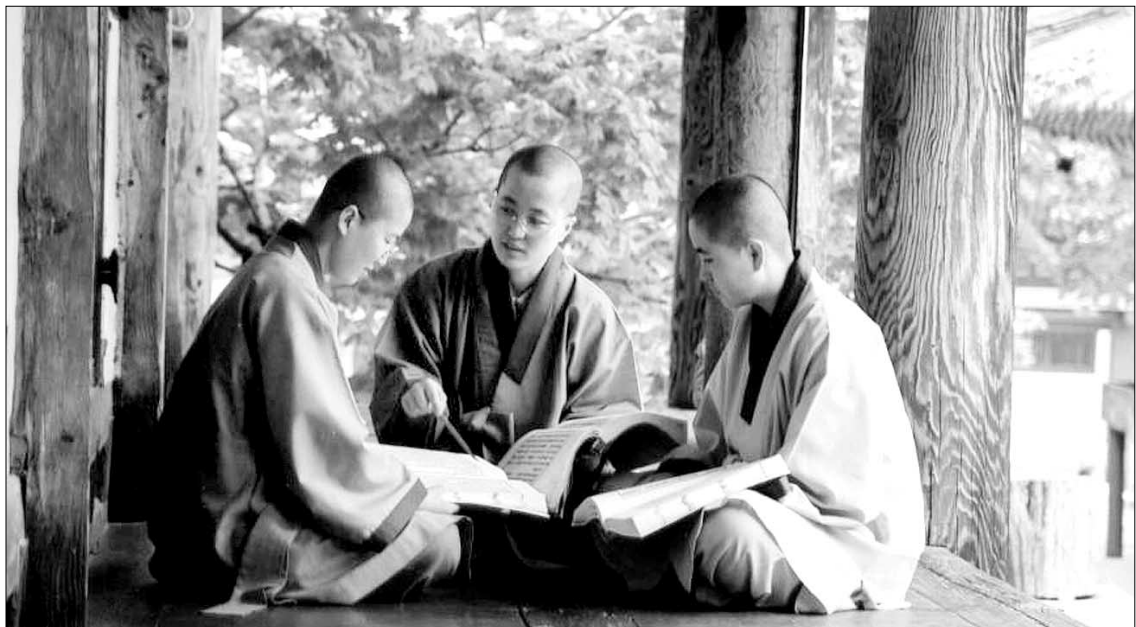


자율속 경전공부 · 참선 함께 연마



청암사 강원은 학인들의 자율성을 중시, 거의 모든 행사 방침과 운영을 학인들의 대중공사를 통해 결정한다. 사진은 자유시간임에도 학인들이 서로 몰으며 경전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

사미니 강원을 가다 ⑤ · 끝 청암사 강원 (www.chungamsa.org)

가야산 단지봉에서 덕유산으로 이어지는 불령산 자락에 우리나라 대표적 비구니 교육도량 청암사 강원(강주 지행이 있다. 7월 말 집전 청암사를 찾았을 때 스님들은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마무리 하고 '법화경 산림 7일주 야기도'를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강사 상덕 스님



중강 길정 스님

청암사는 매년 여름 방학전 8월 첫째 주에 학인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7일간 <묘법연화경>을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전통을 13년째 이어오고 있다. 강원 문을 연지 얼마되지 않던 어려운 시기에 불사를 앞두고 학인 대중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것이 요즘은 일반 재가불자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 동참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산중사찰이라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제 양성은 물론 인근 지역 포교에도 열심이다.

청암사는 신라 현안왕 3년(859) 도선 국사가 건립한 천년 고찰로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가인 화엄정혜(晦庵定慧) 스님으로부터 비롯된 불교강원의 맥이 근대 교봉, 우룡, 고산 스님으로 이어진 것이다. 일제 때는 대운 화상의 중창불사로 불교 강원이 유명했으며, 해방 후에는 대강백 한영 스님이 이곳에서 학인들을 가르쳤다. 1987년 지행 스님과 상덕 스님이 학인 16명과 함께 비구니 강원을 설립하면서 70년대 이후 끊어졌던 강원의 맥을 다시 이었다.

현재 청암사는 130명의 학인들이 학장 지행, 강사 상덕, 중강 길정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계율을 지키며 학인에 열중하고 있다. 매일 예불과 기도, 간경과 독송이 끊이지 않는 강원생활에 대한 학인들의 자부심도 남다르다. 또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의 원칙을 지키며 울력을 통한 일상속의 실천수행을 다지고 있다.

계 · 정 · 해 삼학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청암사의 교육은 전통강원으로서의 내전교육에도 충실할 뿐 아니라, 매일 간경과 좌선을 통해 선교습수를 추구한다.

사미니 강원 가운데 비교적 젊은 강주인 지행(58) 스님은 학인들에게 영어, 컴퓨터, 꽃꽂이, 염불, 사경, 다도, 태극권, 선학, 논어, 등 다양한 외전수업을 통해 현대적인 감각을 심어주는 데도 소홀하지 않는다.

청암사 강원은 학인 한사람 한사람의 자율성을 중시하며, 동아리 운영, 홈페이지 관리, 회보 발간,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운영 등 거의 모든 행사 방침과 규정을 학인들이 대중공사를 통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것이 작은 지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대중과 화합(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란 강주 스님의 가르침 때문이다. 지금도 학인들이 세운 규칙이지만 할당만 것은 강사스님들까지 지키고 따르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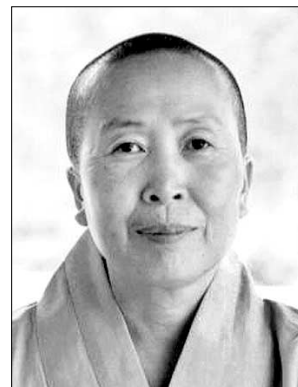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실현을 교훈으로 삼는 청암사가 중시하는 또 한 가지는 일체 중생을 향한 동체대비심의 실현이다. 따라서 청암사는 매일 첫째일요일 일반 재가 신도들을 위한 법회와, 매주 어린이, 학생법회를 통한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

92년부터는 학인들이 '금강회'를 만들어 매년 추석 명절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공양미를 보시하고, 불우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구미 순천향 대학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학인들이 4년마다 손잡이 기다리는 또 하나의 전통은 올림픽이 열리는 해마다 이어지는 청암사에서 해인사까지의 산행이다. 무려 10시간이 걸리는 산행은 청암사의 올림픽인 셈. 매년 길을 잃는 소동을 겪어 많은 에피소드를 남겼지만 길을 걸으며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수행과 대중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인터뷰 강주 지행 스님



“수처작주(隨處作主 立處皆眞) 언제 어디에 처하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좌선을 다하는 것이 수행자의 참다운 면모다.”

청암사 강주 지행 스님(사진)이 학인들에게

항상 이르는 당부이며, 그렇기에 스님은 “청암사를 졸업한 스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쁘다.

지행 스님은 1966년 출가, 71년 범어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받았다. 87년 3월, 비구니 강원을 세우겠다는 발원 하나로 상덕 스님과 청암사로 들어와 진영각과 육화료를 보수하고 중현당, 선열당, 극락전을 중수했으며, 백화당과 범종각을 세우는 등 허물어져 가는 가람을 일으켜 오늘날 청암사를 한국의 대표적 비구니 강원중 하나로 만들었다.

지행 스님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변변한 세면장 하나 없어 새벽 3시부터 9시까지 순번을 정해 한 번씩만 세면장을 썼을 정도”라며 당시를 회고했다. 지금 청암사는 2년 전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와 육화료 중수, 184명 규모의 교육관 불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스님은 “강원의 교훈이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인 만큼 주지 상덕 스님의 뜻처럼 교육도량으로서의 뜻을 넓혀 재가자를 위한 포교를 병행하는 열린 강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암사 강원이 배출한 스님들

청암사 강원은 지금까지 18회 28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스님들 가운데에는 3년결사를 통해 수행에 정진하는 스님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지역에서 사찰 주지나 유치원 원장, 교범사 등으로 포교일선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울산 법왕사 주지 혜경 스님(4회)이 회장을 맡고 있는 동문회는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사업을 펼치고 있다. 주요 동문으로는 유취의정부 연꽃어린이집 원장, 재취(포천 마태사 주지), 성원(중국 남경대 박사·부산 흥법사 주지), 혜정(광동중 교범사), 성주(중국대 복지학과 강사), 정석(수원 행복합집 원장), 여현(동국대 불교학과 박사과정), 자욱(스리랑카 칼라니아대 석사) 스님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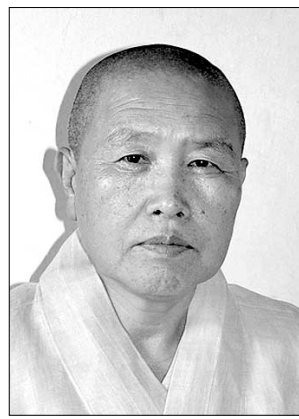
김천=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한국의 비구니 스님 <19> 묘관 스님

“만족 알고 치우치지 마라”

“지족상락(知足常樂) 능인자안(能忍自安).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즐거우며, 능히 참으면 스스로 평안한 법입니다.”

해인사 약수암 묘관 스님(세수 69세·사진)은 아침부터 달려가 한 말씀 청하는 기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자상하게 ‘혹 못 알아들을까’ 포박포박 풀어 마음법을 얘기해줬다. 또 “중생이나 중생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오래 가지지 말고 빨리 버릴 줄 알아야 한다”며 평상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신다. 요즘 사람들은 욕심과 다름 때문에 세상을 이토록 어렵게 한다며 걱정하셨다.



이 생기기 전까지 스님은 해인사 보현암, 삼선암, 국일암 등의 사미니들 앞에서 강의를 썼다.

스님은 요즘도 매일 오후 2시면 약수암 행자들에게 1시간씩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스님은 행자들에게 경을 가르칠 때 “경만 따로 보지 말라”고 하신다. 선지식이 경을 쓸 때 가졌던 마음을 짐작해, 내 것같이 여기는 ‘실천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스님은 “아무리 오랜 시

간 경을 읽고 외운다 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덧붙이신다.

60년대부터 사미니들에게 젊음 수좌들과 하루 4번 정진

암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러다 46년에 정인 스님을 은사로 동진출가했다. 그 때가 11살. “어린이에 나쁘진 않았으니 출가를 했겠지”라며 남의 말 하듯 출가당시 회고 했다. 50년에 해인사 인곡 스님에게 사미니계, 63년 자운 스님에게 비구니계를 받았다.

62년 지관 스님이 해인사강원 강주로 있을 때 경을 배우고 해인사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35년 전 약수암에 주립선원이 생길 때까지 많은 큰스님들로부터 경을 두루 배웠다. 선방이 생긴 후에는 결제 월마다 빠지지 않고 정진했다.

묘관 스님은 경학과 실참을 두루 겸비한 선객으로 고회를 바라보는 요즘도 새벽 3시엔 어김없이 일어나 새벽예불을 올리고 밤 10시까지 주립선원 젊은 수좌들과 함께 하루 4번 입선에 든다.

60년대 제대로 된 비구니강원

“그저 약수암에 비구니가 하나 살고 있다면 그뿐이지, 할 말이 뭐가 더 있느냐”는 스님의 첫 마디처럼 스님은 결코 ‘나’라는 ‘색’도 ‘형’도 없이 살아왔다. 그렇다고 해서 스님이 밖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91년부터 약 10년간 비구니계단의 도감과 행자교육 도감을 맡기도 했을 정도로 종단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무뎠없이 앞장서는 모범을 보이기도 했다. 또 전국비구니회가 자리를 잡기 전 영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의 화합을 위한 활동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오랫동안 묘관 스님을 모셔온 시자스님은 “노스님은 부드럽고 자애롭지만 나 같은 (번개가 많은) 사람도 이렇게 바뀔까가 데리고 살만큼 너그러워 아량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로 스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배지선 기자

법요집·기초교리 集 과도 재 발간

청단교육 매체가 다양한 오늘날에도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교육보조자료로는 칠판과 과도를 활용하는 입체적 교수 방법이 좋습니다. 법사님들의 많은 활용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 20일 이후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군법당, 경찰서 교도소 등 대중교리 교육이 필요한 곳에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 전화주시면 택배로 우송해 드립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할장과 반배
 7. 고두레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요계
 15. 사성제
 16. 사설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휴대용 다구(茶具) 출시!

스님, 불자님!!! 가벼운 산행, 성지순례, 대중공양때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언제나 O. K 상그러운 차향(茶香)과 간경을 선물하세요. 단계 주문 일 경우 원하시는 로고를 새겨드립니다. * 자동차 캠핑에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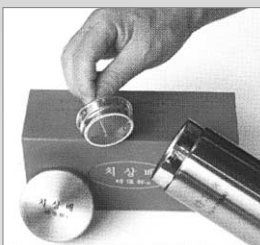
450ml / CS2001



360ml / CS2002



CP1001



거름망을 탈착시킬 수 있으므로 찻잎, 티백 등이 분리됩니다. 진공 이중용기라 보온, 보냉이 확실합니다.



고급포장, 미려한 제품디자인, 선물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녹차, 중국차, 티백 등 입 맛따라 간편하게 사용되는 휴대용 차 도구



(株) 치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1-2 그린빌 오피스텔 511 TEL: 서울본사 02)3487-0308(대)